

## “과학기술위원회 별도 설치법 제정해야”

### 과총,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의문 제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崔亨燮)는 6월 9일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를 한시법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기 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번 건의문 제출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특별법중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희(과학기술부 정책 71100-139, '98.5.30)함에 따라 본 연합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심의('98.6.5)를 통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건의내용 1. 대통령이 과학기술 진흥의지를 몸소 실천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적극 찬성함. 2.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과학기술위원회를 한시법인 과학기술특별법에 담을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조속히 별도의 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또한 출연연구기관의 관할 소속문제도 관련부처로부터 분리한다는 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한시법으로 제정된 과학기술위원회에 소속시키는데 문제가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설치될 예정인바, 이러한 비상설기구에 소속시키는데도 문제가 있으므로 재

검토가 요망됨. 4. 특별법의 개정시에는 과학기술진흥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사업 국제감면도 건의

또한 과총은 6월 1일 본연합회 회원단체인 대한건축학회가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국제징수감면을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요청해오에 따라 학회수행 학술연구용

역에 대한 국제징수감면과 관련한 협조요청 건의문을 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세무당국에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98년도부터 세법을 개정하여 용역수행기관에는 법인세,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여 학회와 교수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줌으로써 학회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피케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의욕상실로 이어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합회는 270여개 회원학회를 대표하여 과학기술 관련학회의 연구활동 보호육성과 국가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했다. ㉟

### 과총 崔亨燮회장 회고록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출판기념회 개최



▲ 과총 崔亨燮회장 회고록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출판기념회에서 내빈들이 축하건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산증인인 과총 崔亨燮회장의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출판기념회가 6월 5일 李傑三사무총장의 사회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姜昌熙과학기술부장관, 朴益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金炳洙연세대총장, 金基衡·朴肯植전과기처장관, 李寬원자력안전기술원이사장, 全武植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崔亨燮회장이 지난 30여년에 걸친 과학기술 외교활동 경험을 정리한 책으로

崔亨燮회장은 이 책에서 과학기술정책책임자·전문과학기술인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학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